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관한 사적 연구  
— 고대에서 근대까지 —

이 민 선 · 김 민 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A Historical Study on the Visual Inconsistency of  
Sexual Image in Dress**

— From Ancient Times to Modern Ages —

**Minsun Lee, Minja Ki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4. 11. 21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race historically the causes of the visual inconsistency of sexual image in dress with versatile perspectives.

For this purpose, theoretical studies about the concepts of sexuality in dress were preceeded. To trace the factors of the visual inconsistency of sexual image in dress, historical studies from ancient Egypt to modern ages were done. And then, the factors of the visual inconsistency of sexual image in dress were identified.

The synthetic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visual inconsistency of sexual image in dress shows the phenomena that men introduce the traditional feminine image in dress (ex. X silhouette, skirts), whereas women do the traditional masculine image (ex. Y silhouette, pants), which arouse androgynous image in appearance. And, it also indicates that men or women wear the dress excluded the traditional masculine image as well as the traditional feminine image, which arouse neutral image in appearance.

2. The visual inconsistency of sexual image in dress have been existed historically, from Egypt to modern ages.

3. The visual inconsistency of sexual image in dress was caused by various factors as follows;

First, ideal beauty of the times which did not distinguish between masculinity and femininity resulted in the visual inconsistency of sexual image in dress.

Second, as a means of seeking pleasure, the visual inconsistency of sexual image in dress was used.

Third, as a means of expressing ideology, the visual inconsistency of sexual image in dress

was selected.

Forth, in religious meaning, the visual inconsistency of sexual image in dress was appeared.

Fifth, popularization of sports and occupational role made women adopt the masculine image in dress in view of the aspects of functionalism.

Sixth, Undevelopment of tailoring contributed to generate androgenous image in dress.

### I. 서론

일반적으로 복식은 착용자의 성을 표현하고, 두 성은 복식에 의해 역사적으로 구분되어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복식의 독특한 기능은 두 성의 특징을 강조하여 이들을 구분짓기도 하지만, 두 성의 특징을 은폐하여 이들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는 것이다.

남녀의 신체적 성(sex)과 사회적 성(gender)으로 이루어진 남성성 즉 마스쿨리니티(masculinity)와 여성성 즉 페미니니티(femininity) 즉 여성성에 관한 고정관념에 따라 형성된, 복식에서의 전통적인 남성적 이미지를 남성이 채택하고, 여성적 이미지를 여성이 채택하는 현상을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일치라 이름한다면, 이러한 고정 관념으로부터 이탈된 현상들은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라 명명할 수 있다.

Jane Grove<sup>1)</sup>는 20세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혁명적 복식 중 하나로 이러한 성의 가시적 불일치를 이룬 복식을 들었다. 그는 여성 평등을 위한 정치적 움직임과 성 역할의 변화는 성 혁명을 초래하여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를 출현시켰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를 설명하는 많은 연구에서 그 원인을 20세기 이후 여성 해방과 같은 이념이나 남녀 역할 변화와 같은 사회적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왔다.

그러나 복식사를 통해볼 때 복식에서의 성의 가시적 불일치는 비단 20세기 이후의 현상이 아니라 복식의 발생 시기부터 문화체계의 일부인 복식에서의 큰 흐름으로 존재하여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대한 이해는 문화의 제반 구성 요소에 대한 통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 현상을 정의내리고 이를 이룬 요인들을 사적 고찰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 현상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규명함을 목적으로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란 무엇인가?

둘째,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는 사적으로 존재하여 왔는가?

셋째,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를 사적으로 이루어온 내적 요인들은 무엇인가?

이와같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을 통해 복식의 조형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성의 가시적 일치를 규명함을 바탕으로 성의 가시적 불일치 현상을 구체적으로 정의내려 보고,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사적으로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가 출현한 배경 즉 이를 출현시킨 요인을 분석하여,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 현상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 II.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대한 정의

### 1.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일치

남성적-여성적 이미지는 인간 나체 시대의 190만년 간에도 본능적, 의식적으로 지속되어 5~10만년전 제 4빙하기 네안데르탈인이 모피 의류를 발명했을 때 이미 복식의 성차는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sup>2)</sup>. 이후 복식이 각 시대의 남성상과 여성상을 표현하고<sup>3)</sup>, 두 성의 역사적으로 그들의 복식에 의해 구분되어 왔다.

고대 중국의 음양설은 Northrup(1936)<sup>4)</sup>, Morton(1968)<sup>5)</sup>, Hastie와 Widger(1976)<sup>6)</sup>, Davis(1980)<sup>7)</sup> 등에 의해 복식 디자인 요소의 형태에 따른 남성적 특질과 여성적 특질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안유인(1989)<sup>8)</sup>에 의해 재확인되었는데 이는 의상 디자인과

외모의 특성을 설명하는 기본 이론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이 자신의 성으로 성 전형화된 복식의 요소를, 여성이 자신의 성으로 성 전형화된 복식의 요소를 착용하는 현상을 복식에서의 성의 가시적 일치로 정의 하고, 복식에서의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다섯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된 음양 개념과 따른 복식 디자인 요소를 참조하고, 문헌 고찰을 통해 여성적, 남성적이라고 기록된 복식 디자인 요소들을 종합하여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의 개념을 조형적 측면에서 정의 내려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복식에서의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에 대한 형식적 요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형태를 중심으로 그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인 조형 예술 분야에 있어서, 일정한 사물의 형태에는 윤곽선, 내부형, 구조형이라는 세가지 형태가 있다.

복식에서 남성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윤곽선은 남성의 신체적 특징 즉, 어깨와 가슴을 강조하는 Y형이며, 여성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윤곽선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 즉, 가슴과 허리, 엉덩이를 강조한 X형이다. 남성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내부형은 상의의, 소매, 칼라, 넥라인, 기타 장식 등이 직선적이며, 하의인 바지는 신체에 거의 맞게 제작되어 강인한 두다리를 인식하게 한다. 여성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내부형은 상의의 소매, 칼라, 넥라인, 기타 장식 등의 곡선적이며, 하의인 스커트는 하반신의 두다리가 분리된 인체 구조를 의식하지 않은 형태이다. 류기주<sup>9)</sup>에 의하면 구조형은 복식의 내부에 구조적인 선이 없이 구성된 평면형과 복식의 내부에 구조적인 선을 이용하여 구성된 입체형으로 구분된다.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를 이루는 복식은 모두 복식의 내부에 구조적인 선을 이용한 입체형이 특징적이다. 즉 남성복식은 어깨나 가슴을 강조하는 Y형의 입체이며 여성복식은 가슴과 허리, 엉덩이를 강조한 X형의 입체이다.

이상과 같은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에 따른 형태를 중심으로 한 복식디자인 요소의 예들은 복식의 발생과 더불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근대 이후에 더욱 확고히 정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이 위에서 정의내린 복식의 남성적 이미지만을 도입한 경

우와 여성이 위에서 정의내린 복식의 여성적 이미지를 도입한 경우를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일치로서 정의 내리고자 한다. 예를들면, 남성은 Y형에 직선적 상의와 바지, 여성은 X형은 곡선적 상의와 스커트를 착용한 경우이다.

## 2.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

일반적인 성의 가시적 불일치가 양쪽 성의 특질을 모두 가진자와 성 역전된자, 양쪽성의 특질을 거의 갖지 않은 중립적인 자로 나타나듯이, 복식에서 가능한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는 복식에서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와 혼돈된 경우와 복식에서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와 모두 배제된 경우가 존재한다. 즉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란 남성이 복식의 여성적 이미지를 채택하거나 여성이 복식의 남성적 이미지를 채택함으로써 양성적 이미지를 자아내는 현상 또는 남성과 여성이 복식의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를 모두 배제함으로써 중성적 이미지를 자아내는 현상을 가리킨다.

반대 성 이미지의 요소를 일부 도입한 경우가 복식 자체에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를 공유한 양성적 이미지를 띠게됨은 쉽게 이해된다. 그러나, 이성의 복식 디자인 요소를 전체에 도입한 경우에도 착용자의 성을 완벽하게 위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착용자의 성에 관한 단서는 반드시 남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자신의 신체적 성과 복식을 통해 상대방 성을 공유하게됨으로써 양성적 이미지를 소유하게 된다. 따라서 양성적 이미지는 복식의 이성이 이미지를 일부 혹은 전체를 도입한 경우의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정의 내리고자 한다.

복식의 중성적 이미지란 남녀의 체형에 근거해 인위적으로 제작된 Y형이나 X형의 윤곽선을 피한 신체를 은폐하는 드레이프나 튜닝 형의 평면형의 비구조적인 형태로서 내부형 등에서도 두드러진 여성적 혹은 남성적 특질을 배제한 중립적인 이미지로서 정의내리고자 한다.

## III.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불일치에 대한 사적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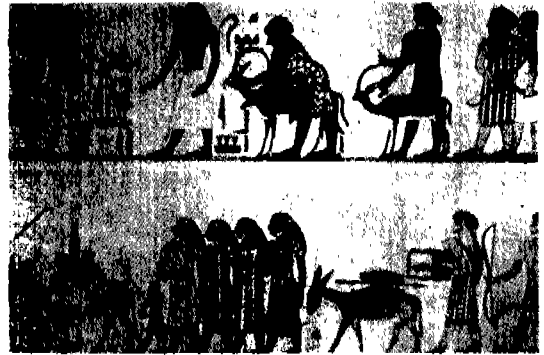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를 이루게

<표 1>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일치와 성의 가시적 불일치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일치

남 성	남성적 이미지 착용(Y형, 직선적 상의, 바지 등등)
여 성	여성적 이미지 착용(X형 곡선적 상의, 스커트 등등)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

성별	이미지	양성적 이미지	중성적 이미지
남 성		여성적 이미지 도입	성적 이미지 배제
여 성		남성적 이미지 도입	성적 이미지 배제



[그림 1] 이집트 시대의 복식(B.C. 1900) Franc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N.Y.: Harryn Abrms, Inc, 1976) p. 52.

한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앞에서 정의내린 성의 가시적 불일치를 이룬 복식들이 출현한 배경들을 고대 이집트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서적으로 추적하였다. 시대 구분은 복식사 문헌들에서 시대를 구분한 것 중 복식에서 성 개념 표현의 내적 요인과 외적 형식의 구분된다고 생각되는 시대에 따라 고대 이집트, 그리스 및 로마, 비잔틴,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근대로 하였다.

1. 이집트

이집트인들은 천을 모양에 따라 잘라 다시 꿰매는 것은 아름다운 천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재단이나 봉제를 거의 하지 않은 상태의 드레이프형 복식을 제작하였다<sup>10)</sup>.

즉 [그림 1]과 같이 한장의 사각형의 천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접어서 한쪽 끝을 꿰매거나 목선과 내놓고 양 옆은 바느질하지 않고 터 놓은<sup>11)</sup> 복식이 제작되어 중성적 이미지를 이루었다. 따라서 복식의 형에 있어 근본적인 성차가 이루어지지않았다.

그러나, 남자의 복식은 보다 활동적인 형태를 띠었고, 여자의 복식은 몸에 꼭 끼고, 유방을 노출하는 비활동적인 형태를 이룸으로써 성차가 표현되었다.

이집트에서는 같이 여성 통치자들이 가짜 턱수염을 달았으며, 그것은 위엄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집트 사회에서 여자의 턱수염은 힘과 지혜와 신성의

상징이었다<sup>21)</sup>.

또한 이집트에서는 원래 생장의 신이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신인 Dyonisos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진에서 여성 복식을 채택하기도 하였는데, 이 행진에서 여자처럼 복식을 착용한 사제들은 대지/여자, 하늘/남자라는 합류점을 상징하였다<sup>13)</sup>. 이집트 소년은 포경수술을 한 후에는 여성의 옷을 입고 행진하였는데<sup>14)</sup>, 그것은 성 구분의 관습을 반전함으로써 한 개인이나 종족은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획득하게 되리라는 믿음 때문이다<sup>15)</sup>.

이와같이 이집트에서는 평면형 복식이 제작되어 중성적 이미지를 자아냄으로써 형 자체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를 이루었으며, 장신구 등에 의해 이루어지던 미소한 성 구별을 권위를 표시하거나 신성을 상징하기 위해 또는 자연 변화의 힘을 획득하려는 주술적 목적을 위해 반전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 그리이스 및 로마

그리스 로마 시대인들은 이데아의 반영으로서 완벽 한 조화를 이룬 인체를 재현하고자 하였다<sup>16)</sup>. 그들은 대칭, 균형, 비례에 바탕을 둔 조화의 법칙을 매우 중요시 여겨, 이를 기준으로 인체 부분 상호 간의 올바른 비례를 확립하고자 하였으며, 인체의 탐구를 통해 자연의 법칙을 확인하고자 하였다<sup>17)</sup>. 복식에 있어서도 인체의 남성성이나 여성성의 강조보다는 인체의 조화적 비례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드레이퍼리로서 합리



[그림 2] 로마 시대의 복식 Milia Davenport, *The Book of Costume* (Crown Publishers, 1976), p. 75.

적으로 묘사하였다<sup>18)</sup>.

그리스 로마 복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구별은 남녀의 구별이 아니라, 주름잡혀 드러워진 의상과 봉제에 의한 의상 간의 구별이었다<sup>19)</sup>. 그리스인의 복식 중 도릭 키톤, 이오닉 키톤, 히마티온, 클라미스 등은 남녀 공용이었으며, 로마 복식 중에서도 재정 시대부터 공식복으로 지배 계급 남성들에게 입혀진 토가는 본래 남녀노소 모두가 착용한 복식이었다<sup>20)</sup>.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이성의 복식 착용은 개체 내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연에서의 변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추수와 풍요의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sup>21)</sup>. 이 시대의 공연에서 여자 역할은 남자 배우가 맡게 되었는데 그것은 단지 재미만을 돋구는 것은 아니었다. 즉 공연에서의 이성 복식착용 행위는 풍요 기원 의식에 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었다<sup>22)</sup>.

이상에서와 같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정신적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하여 이데아의 반영으로서 완벽한 조화를 이룬 인체를 재현하고자, 복식에 있어서 남성적 이미지나 여성적 이미지의 강조보다는 인체의 조화적 비례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드레이퍼리로 묘사함으로써 증성적 이미지를 이루어 복식의 근본적 형에 있어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를 이루었으며, 장식이나 재질 등에 의해 표시되던 미소한 성구별은 자연 변화의 힘을 상징하기 위해 반전되었다.

### 3. 비잔틴

중세의 세계관은 하늘의 영혼을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발전시켰지만, 육체라는 외피는 천박한 부속품으로 전락시켰다<sup>23)</sup>. 따라서 이 시대에는 종교적 위력 앞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인체는 무시되었으며, 인체는 오직 우주론적 성격을 지닌 상징적인 것으로 여겨졌다<sup>24)</sup>.

비잔틴 왕실과 5세기에서 11세기의 전 유럽은 전형적인 기독교 금욕주의에 의해 지배되었으며, 이는 계속해서 남녀의 옷입는 방식을 영향을 미쳤다. 이 시대의 남녀는 모두 느슨한 로브(robe)를 착용하였다<sup>25)</sup>. 비잔틴 시대의 복식에는 성적인 의미가 없었으며, 종교적 금욕주의에 의해 몸을 완전히 감싸고 드러내지 않는 실루엣을 이루었다.



[그림 3] 비잔틴 시대의 복식 (11C) Boucher, op. cit., p. 89.

[그림 3]은 황제 Romanus 4세와 황후 Eudoxia의 모습으로 어깨에서 수직으로 내려뜨려 인체를 은폐하는 복식을 착용하여 증성적 이미지를 자아내고 있으며, 장신구, 문양 등에 의해서만 성차를 만들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비잔틴 시대에는 기독교적 금욕주의에 의해 복식에서 성에 대한 표현이 이루어지지 않는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 현상이 나타났다.

#### 4. 고딕

고딕 시대의 의복의 입체화 과정은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특성에 근거한 복식을 창조하게 하였고, 이는 나아가 르네상스 시대에 바지는 남성용, 치마는 여성용이라는 고정 관념을 출현시켰다.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 바지 모양의 다리 덮개가 말타기에 실용적임이 증명되었고, 철갑 갑옷에도 치마 형태보다는 바지 형태가 더 적합한 것으로 여겨졌다<sup>26)</sup>. 고딕 시대 후기에 비로서 바지는 남성용, 치마는 여성용이라는 고정 관념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그 후, 서양 문화의 영향으로 다른 문화권에서도 이러한 고정 관념이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sup>27)</sup>. 고딕 시대에는 또한 새로운 봉건 제도의 요소 중 하나인 제국 인식이 의복에 반영되었고, 이는 남녀복식의 성차에 기여하였다. 남성성이 강조되었고, 남자는 사이드 레이싱 튜닉(side lacing tunic)을 착용하여 몸을

드러내었다<sup>28)</sup>. 여성은 법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게 되었고, 결혼하기까지 남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하였다<sup>29)</sup>. 이때부터 여성들은 복식을 통해 성적 매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sup>30)</sup>.

이러한 시대적 상황 아래 행해졌던 중세의 '바보들의 축제(Feast of fools)'는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 여자 옷을 입고 교회의 통로에서 울부짖고 미사를 했던 행사로 기독교 금욕주의가 억압하는 공공연한 성욕과 삶의 혼돈의 가능성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와같이 고딕 시대에는 재단 기술 개발, 봉건 제도, 십자군 전쟁 등으로 인해 남녀 복식의 형 자체에서 성 구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상황 아래 이성의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는 무질서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 5. 르네상스

르네상스는 인간에게서 신비성을 박탈하였다. 즉 불사의 영혼의 덧없는 외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어느덧 육체적 관념으로서의 인간이 세계 속에 얼굴을 내밀게 되었다<sup>31)</sup>.

르네상스 시대의 남성 패션에는 확실히 여성적인 요소가 있었다. 이 시대의 남성 복식은 [그림 5]에서와 같이 퍼프, 슬래시를 사용해 복잡한 구성을 이루고, 두블렛의 끝을 뾰족하게 하여 작은 허리를 강조했으며, 엉덩이에 패드를 대어 여성 힙의 둥근 곡선을 반영함으로써 여성적 신체 특성을 반영한 X실루엣을 이루는 등, 오히려 여성보다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들이 '여성 같다'라는 불평이 당대의 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길게 파인 네크라인 역시 부도덕하고 남성적이지 못한 것으로 비난받았다<sup>32)</sup>.

16세기 후반 특징인 의복에 있어서의 기이한 여러 시도들 중 하나는 여성 또한 남성 의복의 특징을 지닌 복식을 착용하였다는 것이다. 16세기 초에도 남성 의복을 선호하는 여성들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널리 퍼지지 못하고 성탄절이나 망년회 동안에나 반대 성의 복식을 입는 경향이 있었다<sup>33)</sup>. 그러나 그 후 1580년에 여성들은 남성의 비버 햇(beaver hat)을 썼으며 러프를 착용하고, 두블렛과 비슷한 바디스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당시 두블렛은 남성에게만 어울리는 것이라하여, 그러한 옷을 입는 여성들은 처벌을 받았다<sup>34)</sup>. 르네상



[그림 4] 고딕 시대의 남녀 복식 Ibid., p. 210.



[그림 5] 르네상스의 남자 복식(1524) Aileen Ribeiro, *Dress & Morality* (London: B.T. Batsford, 1986), p. 61.



[그림 6] 페티코트브리치스(1600) Dianna de Marly, *Fashion for Men*, (London: B.T. Batsford, 1985), p. 46.

스 시대의 영국 여왕은 두가지 신체에 대한 특권을 가질 수 있었다. 즉 여왕만이 왕의 스토마커(stomacher)를 착용하여, 자신의 권위를 표시하려 하였다<sup>35)</sup>.

이와같이 르네상스는 창조와 판능의 시대였으며, 남성복에서도 이러한 시대 정신의 반영되어, 화려한 장식이 도입되었고, 남성의 경우 임신한 듯한 외관과 여성의 둥근 힙의 곡선을 반영하여 복식에서 양성적 이미지를 이루었다. 한편, 여성의 경우에도 새로움을 추구하거나, 권위를 표시하기 위해 남성적 복식 요소를 일부 도입함으로써 복식에서 성의 가지적 불일치 현상을 이루었다.

## 6. 바로크

바로크 양식은 직선보다는 곡선을 더 많이 사용하여 여성적인 맛을 더해 주었다. 이러한 바로크 품은 종교의 지배에서 벗어나 활기를 띤 시대 사조에 부응하여 생긴 자연의 모습으로서, 현세에서의 향락 추구를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는 계몽주의자들의 영향으로 더욱 호화로우며 떠돌아 성행하여 갔다<sup>36)</sup>.

이 시기는 남성이 여성을 복식에서 모방하려는 여성

적 취향의 시대였다. 여성화된 남성 복식 중 많은 비평가들이 주목한 스타일은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인 러브록(lovelock)이었다. 1590년대에 처음 출현하여, 30년간 유행한 러브록은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sup>37)</sup>, 남성의 머리를 짧게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꽤 오랫동안 어깨까지 내려오는 곱슬머리 스타일이 지속되었다<sup>38)</sup>.

1640년대에는 [그림 6]과 같은 페티코트브리치스(petticoat breeches)라는 넓은 바지가 도입되었는데, Mary Evelyn은 페티코트브리치스와 같은 옷은 너무나 약해 보여 남성을 일종의 자용동체로 만든다고 비판하였다<sup>39)</sup>.

그러나, 바로크 후기에는 문명화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졌다. 여성처럼 옷을 입는 것은 비문명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비 이성적인 것으로 되었다. 남성 지배의 상업주의 시대에 이성의 복식을 착용하는 것은 이국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으로 여겨졌다<sup>40)</sup>. 무대에서조차 남성이 여성의 역할을 하는 전통이 포기되었다. 그러나 무대위에서 성 전환에 대한 욕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고대의 신성한 기능을 상실했다<sup>41)</sup>.

한편, 이 시기의 도덕가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주제는 여성의 남성복에 대한 애호 증가이다. 1643년 찰스 1세는 남성복을 착용함으로써 여성이 성을 위장하는 것을 금지하였다<sup>42)</sup>. 또한 이시기에 여성들의 남성 복식 도입은 그들의 열등한 성을 극복하기 위해 행해졌다<sup>43)</sup>.

이와같이 바로크 시대에는 종교의 지배에서 벗어나 현세에서의 향락을 추구하려는 풍조와 더불어 남성 복식에서도 다채로운 색상과 곡선이 사용되어 양성적 이미지가 표현됨으로써 남성복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바로크 후기에 상업주의 시대에 남성의 여성 복식 착용은 위협적인 행동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한편, 여성들은 안전과 편리함 등의 실용적 목적을 위해 혹은 열등한 성을 극복하기 위해 남성복을 도입함으로써 양성적 이미지를 이루었다.

### 7. 로코코

로코코 시대에는 환상과 우아함의 구상화로써 여성적 취향을 띠기 시작했다. 여성복에서의 데콜라지(décollatage)와 가는 허리, 풍만한 힙, 화려한 머리장식등의 여성미의 개념을 지배하였으며, 이러한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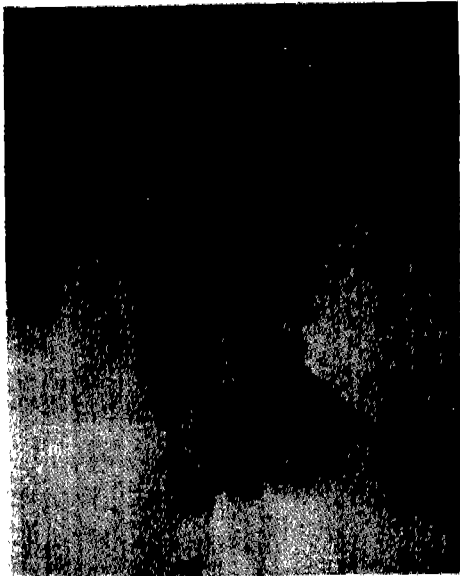
은 남성복에도 적용되었다.

남성의 일상적 코트의 지배적인 모양은 화려한 색상의 넓은 형태였다. [그림 7]에서 처럼 옆자락의 주름으로 말털이나 철사로 딱딱하게 고정되었다. 그리고, 코트 안에는 소매와 넥라인에 프릴을 단 셔츠를 착용하였다<sup>44)</sup>.

로코코의 멋부리는 젊은이들이 갖는 열정은 18세기 풍자화에 잘 나타나 있다. 그들은 여자만큼 외모에 시간을 소비했다. 「시대의 풍류(The manner of age)」의 작가는 그러한 멋장이를 모든 여성의 우스움과 허영, 경솔함을 갖고 있다고 비난하였다<sup>45)</sup>.

17세기 이후 무대에서 남성이 여성의 역할을 하는 전통이 포기된 이래 한 때는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는 예술로 여겨졌던 남성 배우의 성전환은 고대의 신성한 기능을 상실하고 코믹한 것으로 그 의미가 바뀌었다<sup>46)</sup>. 18, 19세기에 이성의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생기는 코믹 효과는 판토마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1770년대의 보 졸레(Beaujolais)의 농부들은 여성 옷을 입고 그들 지주의 검사관을 공격하였다. 그러한 경우의 이성의 복식을 착용하는 행위는 기존 사회 질서의 타파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했으며, 무정부주의



[그림 7] 로코코시대 남성복(18C) Valerie Steel, Paris Fash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p. 147.



[그림 8] 두블렛을 착용한 여성(18C) Mila Contini, Fashion (N. Y.: Croset Books, 1980), p. 184.



를 표방하는 것이었다.

1780년대까지, [그림 8]과 같이 여자들도 길고 좁은 소매와 케이프 칼라의 거대한 코트나 혹은 남성의 두 블랫을 착용하였는데, 그것은 남성적 모드를 흉내낸 것이었다. 그들 역시 남자의 장점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sup>47)</sup>.

이상과 같이 로코코는 환상과 우아함의 구상화로서 여성적 취향을 띤 시대로 일컬어진다. 따라서 이 시대의 남성 복식에도 많은 장식적 요소들이 도입되어 성의 가시적 불일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성은 치마, 남성은 바지라는 엄격한 구분이 존재하였다. 한편, 상업주의 시대의 도래와 함께 남성의 우월한 위치가 확고해짐에 따라 남성의 여성 복식 착용은 무정부주의 등의 위협적인 힘을 표현하거나 희극적 효과를 이루기 위해 사용되었다.

#### 8. 근대

근대에는 이전 시대의 남성 복식에서의 장식성이 사라지고, 검소하고 허세없는 복식이 남성을 지배하였다. 여성의 이상적인 미의 변천은 남성과는 정반대였

지만, 그것은 완전히 자본주의 발전의 요구에 일치했다<sup>48)</sup>. 여성의 천부의 가치는 남성을 매혹함으로써 신의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여성의 복식에 에로틱한 곡선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이후 줄곧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19세기 이래로 복식을 통해 표현되는 성적 행동과 성일체감은 사회적 반항의 적절한 대개물로서 작용하였다<sup>49)</sup>. 이 시기의 남자 복식의 소박하여, 많은 제약이 뒤따랐으므로 19세기 복식은 집단과 개인적 불일치를 상징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덴디즘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덴디들은 [그림 9]에서 처럼 허리를 조이고, 엉덩이를 둥글게 하고, 가슴을 볼록하게 하기 위해 코르셋을 착용하여 양성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한편, 프랑스 대혁명기간 동안 많은 여성들이 남자 의상을 입을 기회를 탈취하였고<sup>50)</sup> 이는 의복 개혁의 시발점을 이루었다고 생각된다. 의복 개혁가들은 패션을 병, 고통, 죽음을 초래하고, 여성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여겼다. 의복 개혁은 초기 페미니즘과 쉽게 연계되었다. 1851년 미국 페미니스트들은 길고 넓은 튜닉 밑에 착용하는 터어키식 바지를 선택하였다<sup>51)</sup>. 이는



[그림 9] 덴디(1819) Steel, op. cit., p. 123.



[그림 10] 근대 여성의 튜피스(1889) Ibid., p. 172.

후에 블루머라 명명되고, 참정권 확대 운동자들에 의해 한동안 입혀졌으나 우수캥스러운 취급을 받고 곧 포기되었다<sup>52)</sup>. [그림 10]의 남성복 같은 더블 칼라의 재킷과 스커트가 분리된 활동적인 투피스는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강조한 것이기도했다<sup>53)</sup>.

19세기 군중에게는 독특한 에로티시즘이 존재했다. 거리의 여자들의 의상은 비밀스런 남성 주의를 표현했다<sup>54)</sup>. 사실상 에로틱 예술은 바지 입은 여성들의 이미지를 많이 다루었다<sup>55)</sup>. 이성의 복식을 착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이었으나, 모델이나 여배우들은 남성의 복식을 입고 성적 매력을 호소하였으며, 매춘 여성의 경우에도 고개를 자극하기 위해 남장을 하였다<sup>56)</sup>. 댄들들 역시 그들의 의복에 여성적 이미지를 빌어와 남성의 에로티시즘을 표현하였다. 또한 몇몇 사람들에게 있어 이성의 복식 착용의 동기는 동성 연애이다.

19세기의 사회주의자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무계급을 과시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상징으로 단추를 뒤로 채우는 남녀 모두를 위한 유니폼을 고안하였다.

여성해방론자들은 남녀 평등을 여자의 복식 개혁으로 실현하려하여 여자도 바지를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자들의 바지 착용은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깊어짐과 동시에 이루어졌다<sup>57)</sup>. 여자들의 세계에도 승마 등의 스포츠가 성해함에 따라 드로어즈나 판탈론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때마침 블루머파들에 의해 여자의 바지 착용이 제창되고 있었으므로 플리놀린 속에 드로어즈나 판탈론의 착용이 보편화될 수 있었다.

근대 사회에서 남녀 복식의 성차는 극대화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는 사회적 반항의 매개물로 작용하거나 향락 추구의 도구로서 사용되었으며, 후기에는 스포츠의 보급과 여성의 사회 진출로서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 현상은 가속화되었다.

이상의 내용은 <표 2>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2>에서는 남성 복식에서의 성의 가시적 불일치 현상을 일으킨 원인, 여성 복식에서의 성의 가시적 불일치 현상을 일으킨 원인, 남녀 복식 모두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 현상을 일으킨 원인을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와같이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 현상은 각 시대마다 존재하여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시대별 복식에서의 성의 가시적 불일치 현상의 주요 배경

시 대	배 경		
	남자복식	여자복식	공동
이집트	신성의 상징	권위의 표현	평면형 복식 제작
그리스 및 로마	신성의 상징		이상미
비잔틴			기독교적 금욕주의
고 덕	무질서의 추구		
르네상스	이상미	권위의 표현	
바로크	이상미	열등한 성의 극복	
로코코	무정부주의의 표방 회극적 효과, 이상미		
19세기	성체감에 대한 반항	사회주의, 에로티시즘, 스포츠보급, 여성해방	동성애

\*공동은 남녀 복식 모두에서의 성의 가시적 불일치 현상이 배경을 나타낸 것이다.

#### IV.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를 이룬 요인들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를 이루게 한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복식사들의 문헌을 통해 사적으로 살펴본 결과, 성의 가시적 불일치를 이룬 복식들의 착용 동기 및 목적은 시대에 따른 이상적인 미, 향락의 추구, 개인 혹은 집단의 이념의 표현, 종교적 가치, 스포츠, 직업에 따른 역할의 성공적 수행, 기술적 요인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 3>으로 제시하며, 이들 각 요인들에 대해 상세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시대적 이상미

신체는 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 정보는 자연적이라기 보다는 복식에 의해서 가공되어진다는 것

&lt;표 3&gt; 복식에서 성의 가치적 불일치를 이룬 요인들

요 인	내 용
시대적 이상미	중성적 이미지, 양성적 이미지(여성적 이미지, 남성적 이미지)
향락의 추구	페티시즘, 에로티시즘, 동성애, 회극적 효과, 무질서의 축
이 념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여성해방운동, 성적체감에 대한 반항.
종 교	신성의 상징, 개체내 변화의 힘, 생식력 호기 상징, 금욕주의
스포츠	기능성의 보완
직 업	활동성의 보완, 이미지의 보완
기 술	재단법의 미발달에 따른 평면형 복식 제작

이다. 따라서, 신체는 복식을 통해 어떤 역할이든 수행해낼 수 있게 되므로, 성에 대한 표시는 신체에서 복식으로 대치되게 되는데, 이때 패션에 있어 가공적 의미가 강할 때 복식에서 성이 모호해진다<sup>58)</sup>. 즉, 복식은 남성복을 복식에서의 남성적 이미지로만 표현하고, 여성복을 복식에서의 여성적 이미지로만 표현하여, 남성미와 여성미를 확연하게 구분할 뿐만이 아니라, 복식의 조작에 의해 신체를 은폐하거나 가공함으로써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를 모두 지닌 양성적 이미지나,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가 모두 배제된 중성적 이미지 또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시대적 이상미가 남녀의 성 구분을 뚜렷이 하지 않는 경우는 복식에서 중성적 이미지가 표현되는 시대, 여성적 이미지가 이상화됨에 따라 남성이 여성적 이미지로 접근하여 남성의 외모에 양성적 이미지가 표현되는 시대, 남성적 이미지가 이상화됨에 따라 여성이 남성적 이미지로 접근하여 여성의 외모에 양성적 이미지가 표현되는 시대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정신적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하여 자연의 법칙을 확인하고자 복식에서도 인체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강조보다는 인체의 조화적 비례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드레이퍼리로 묘사하였다<sup>59)</sup>. 비잔틴 시대에도 기독교적 금욕주의에 의해 몸은 완전히

&lt;표 4&gt; 시대적 이상미에 따른 복식에서의 성의 가치적 불일치

양성적 이미지		중성적 이미지
남성복식	여성복식	공 통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근대	그리스 및 로마

\*공통은 남자복식 여자복식 모두에 나타난 경우를 가리키는 것임.

감싸 신체의 특성을 드러내지 않은 튜닝형의 복식을 착용하였다.

르네상스는 화려한 의상으로 남성미의 개념을 정의한 시대이며, 바로크와 로코코는 남성이 여성을 복식을 통해 모방하려는 여성적 취향을 지닌 시대로 일컬어진다<sup>60)</sup>.

근대 도시의 부르조아들의 심미성은 자연적인 것에 있었다. 그러나, 자연적인 것은 근대 도시 거주자들의 기억이나 꿈에 불과했다<sup>61)</sup>. 근대에서 미와 자연은 동의어가 아니었다. 기계가 아름다울 수 있었고, 도시의 거친 경관 속에 미가 존재할 수 있었다<sup>62)</sup>. 근대의 도시는 새로운 미를 탄생시켰다. 즉, 여성적 매력에 내재된 남성적인 거대함과 강함이 조합된 형태가 철제 풍경에 적합한 것이 되었다. 따라서 여성은 복식에 남성적 복식 요소를 도입하여 복식에서 양성적 이미지를 이루었다.

## 2. 향락의 추구

인간들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즉 향락 추구의 수단으로 복식에서 성의 가치적 불일치가 출현시켰다. 페티시즘, 에로티시즘, 성에서의 무질서로의 회귀를 표현하거나, 동성연애에서의 성별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남녀는 이성의 복식을 착용하였으며, 코믹한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 남성은 여성의 복식을 착용하였다.

페티시즘은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신체의 부적절한 부분이나 의복의 한 품목을 택하는 도착증이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유년기 초기에, 한 여성-대개 어머니-에 매우 강력한 그러나 짧은 기간 고착의 단계를 갖고, 이것을 심저에 남겨둔 채, 그들은 한 여성과 자연을 동일시하고, 그들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고 한

다<sup>65</sup>). 따라서 여성의 옷을 입는 것은 신체를 강력한 흥분으로 몰아 놓는다.

19세기 이후 거리의 여성들은 복식에서 남성주의를 표현했으며, [그림 15]와 같이 에로틱한 예술한 실체로 바지입은 여성들의 이미지를 다루었다.

몇몇 사람들에게 있어 이성의 복식 착용의 동기는 동성 연애이다. 동성 연애자들의 이성 복식 착용은 동성 연애에서의 성별을 자랑스럽게 알리는 방법이었다<sup>64</sup>).

인간은 그 자신의 본성 즉 성적으로 반으로 나뉜 것에 대해 깊이 불만족해 한다. 그리고 이성의 복식을 착용한 사만을 매개로 혹은 이성 복식 착용 축제를 통해 인간들은 다소 본연의 통일을 갈망한다. 중세의 '바보들의 축제(Feast of fools)'는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 여자 옷을 입고 교회의 통로에서 울부짖고 미사를 했던 행사로 성도착과 그에 관계된 의식은 기독교 금욕주의가 억압하는 공공연한 성욕과 삶의 혼돈의 가능성을 표현하는 것이었다<sup>66</sup>.

한 때는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는 예술로 여겨졌던



[그림 15] “남자가 되는 것은 즐겁다”(1872) Steel, op. cit., p. 123.

남성 배우의 성전환은 17세기에 이르러 남성 우위의 상업주의 시대가 도래함과 더불어 고대의 신성한 기능을 상실하고 코믹한 것으로 그 의미가 바뀌었다<sup>68</sup>. 18, 19세기에 이성의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생기는 코믹 효과는 판토마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 3. 이 념

이념의 표현을 위해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가 사용되었다. 사회주의, 여성 해방 등을 표명하기 위해 여성은 복식에 남성적 이미지를 도입하였으며, 무정부주의, 성정체감에 대한 반항 등을 표명하기 위해 남성은 복식의 여성적 이미지를 채택하였다.

프랑스의 사회주의 공동체는 그들이 주장하는 무계급을 과시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상징으로 단추를 뒤로 채우는 남녀 모두를 위한 유니폼을 고안하였다<sup>67</sup>.

정치적 모반자들과 가난한 하층민들은 그들의 시위나 폭동을 위해 종종 이성의 복식을 착용하였다. 그러한 경우의 이성의 복식을 착용하는 행위는 기존 사회 질서의 타파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했으며, 무정부주의를 표방하는 것이었다<sup>68</sup>.

프랑스 대혁명기간 동안 많은 여성들이 남자 의상을 입을 기회를 탈취 하였으며<sup>69</sup>, 이는 의복 개혁의 시발점을 이루었다. 의복 개혁은 여성들이 사회내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의 첫 단계로서 초기 페미니즘과 쉽게 연계되었다. 1851년 미국 페미니스트들은 길고 넓은 튜닉 밑에 착용하는 터어키식 바지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후에 블루머라 명명되었다.

복식은 보호와 장식을 목적으로 착용되어 왔지만, 지금은 공동체의 사회적 도덕적 질서 안에서 착용자의 적합한 지위를 보호받기 위해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성의 복식을 착용하는 행위는 기존에 만연된 암호를 폐지하고 의복에 부과된 성적 상징을 부인함으로써 남성 역할과 남성 지배 사회를 파괴하려는 힘을 지닌다. 16세기 후반 특징인 의복에 있어서의 기이한 여러가지 시도들 중하나인 여성인 남성이 복식 특징을 가진 옷을 입었다는 것이다<sup>70</sup>. 1580년 이후부터 여성들은 남성의 비버 햇(beaver hat)을 썼으며, 두블렛과 비슷한 바디스쿨 착용하여, 복식에서 양성적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두블렛은 남성에게만 어울리는 것이라하여, 그러한 옷을 입는 여성들은

처벌을 받았다<sup>71)</sup>. 1780년대에는 여자들이 길고 좁은 소매와 케이프칼라가 달린 거대한 코트를 착용하였는데, 그것은 남성의 유행을 흉내낸 것이었다. 그들 역시 남자의 특권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sup>72)</sup>. 19세기 이래로 복식을 통해 표현되는 성적 행동과 성일체감은 사회적 반항의 적절한 매개물로서 작용하였다<sup>73)</sup>. 이 시기의 남자 복식은 소박하여, 많은 제약이 뒤따랐으므로 19세기 복식은 집단과 개인적 불일치를 상징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댄디즘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집단적으로 성적체감에 대한 반항적 복식을 채택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댄디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들은 허리를 조이고, 엉덩이를 둥글게 하고, 가슴을 볼록하게 하기위해 코르셋을 착용하여 양성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 4. 종교적 가치

종교적 의미에서 무질서 혹은 분리되지 않은 성의 통합은 모든 생명의 원조이며, 분리된 성은 원천적 붕괴로부터의 쇠퇴를 의미한다. 따라서 한 형체 속에 두 개의 성이 공존하는 양성성은 힘의 근원이며, 신성의 상징이다<sup>74)</sup>. 이성의 복식을 착용한 사제는 그 자신의 자아에서 신의 양성성을 모방하게 된다<sup>75)</sup>.

또한 이성 복식 착용 행위는 개체 내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남녀의 이원적 구분을 상징적으로 반전시킴으로써 삶과 죽음, 미혼과 기혼, 인간과 동물과 같은 이원적 구분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을 뿐 아니라 자연에서의 모든 변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추주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과거의 많은 제식 동안 남자들은 여성복을 전체를 도입하거나 혹은 일부 장신구를 착용하였다<sup>76)</sup>. [그림 16]은 로마 시대의 공연에서 남자 배우가 여장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풍요 기원 의식에 그 기원을 둔 것이었다.

한편, 비잔틴 시대에는 기독교적 금욕주의 사상에 의해 인체를 드러내지 않는 중성적 이미지의 복식을 착용하였다.

신부나 수녀의 외례적 로브는 남성적 이미지나 여성적 이미지에서 탈피한 중성적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신성불가침의 공포를 유발하거나 생식력의 포기를 상징한다<sup>77)</sup>. 또한, 성적자 복식에서 성성(sexuality)의 부재는 양 성 간의 관계를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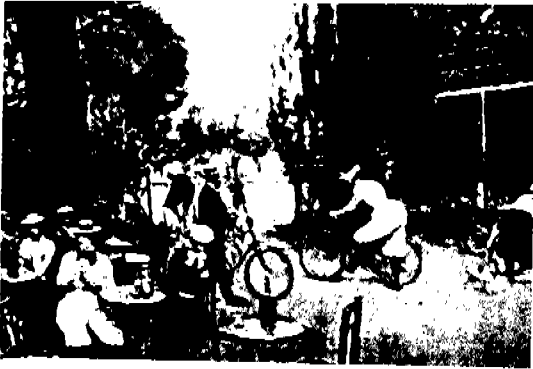
[그림 16] 로마시대 배우의 여장 Peter Acroid, Dressing Up (London: thames and Hudson, 1979), p. 46.

되기도 한다. 이와같이 신부나 수녀, 승려의 복식은 신체를 은폐하고, 성성을 상징하는 복식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중성의 이미지에 접근한다.

#### 5. 스포츠

여성해방론자들은 남녀 평등을 여자의 복식 개혁으로 실현하려하여 여자도 바지를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자들의 바지 착용은 스포츠에 관심이 깊어짐과 동시에 이루어졌다<sup>78)</sup>. 또한 프랑스에서 스포츠는 패션을 의미했는데, 어떤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패션너블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고명한 운동에는 특별한 복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sup>79)</sup>. 승마복은 스포츠웨어의 형태로 고정되었지만, 분명 새로운 옷-여성 테일러드수트-의 원조였다<sup>80)</sup>. [그림 17]과 같이 사이클의 보급과 더불어 19세기 말의 여성들은 공공연하게 블루머를 착용하였다.

신체 건강과 능률성이라는 사회 풍조와 더불어 스포츠는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바지는 여성들이 운동 선수의 인체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비슷한 이유로 남녀 모두 조깅 수트,



[그림 17] 블루머 차림의 여성들(1985) Prudence Glynn, In fas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78), p.157.

티셔츠, 리닝화를 일상복으로 택하기도 하였다.

### 6. 직업에 따른 역할의 성공적 수행

성공적인 직업 역할의 수행을 위해서 사람들은 이성의 복식 요소를 의복에 도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지, 활동성 등이 향상된다.

첫째, 이미지의 보완을 위해서 이집트 사회에서 여자의 턱수염은 힘과 지혜와 신성의 상징으로 여겨져 여성 통치자들이 위엄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림 18과]과 같이 가짜 턱수염을 달았다<sup>81)</sup>. 르네상스 시대의 영국 여왕은 왕의 스토마커를 착용하여<sup>82)</sup>, 자신의 권위를 표시하려 하였다. 남성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복식에 여성적 이미지의 요소를 도입한 예들이 발견된다. 19세기 백화점의 남성 판매원들은 녹색 코트와 바지, 노랑과 빨강 줄무늬가 있는 여성적 형태의 조끼를 착용하였다<sup>83)</sup>. 1702년에서 1708년의 뉴욕 시장 초상화에서 그 시장은 여자처럼 옷을 입고 있다. 그는 앤 여왕의 대변자로서 그녀를 충실히 표현하려는 의도에서 여성처럼 옷을 입었던 것이다<sup>84)</sup>. 이와같이 이미지 보완을 위해 착용된 복식은 여성 복식에 남성적 이미지의 도입 또는 남성 복식에 여성적 이미지의 도입이 이루어져 복식에서 양성적 이미지를 표현한다.

둘째, 활동성의 보완을 위해 이성의 복식 요소를 도입한 예로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들 수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전체 복식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쳐, 1870년대 이후에는 여자 복식의 간소화 또는 남장화가 이



[그림 18] 이집트여왕(B.C. 1485) Acroyd, op. cit., p. 89.

루어졌다. 남성복같은 더블 칼라의 제킷과 스커트가 분리된 활동적인 투피스는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강조한 것이기도 했다<sup>85)</sup>.

### 7. 기술적 요인

이집트인들은 몸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넓은 천을 최초로 만들었는데, 그들은 그 천을 모양에 따라 잘라 다시 꿰매는 것은 아름다운 천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여<sup>86)</sup> 베틀로 짠 천을 자르지 않고, 직사각형 형태 그대로 몸에 둘러 입는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복식의 형태 자체에 성의 표현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중성적 이미지가 표현되었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첫째, 성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를 정의 내려 보고, 둘째,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를 사적으로 추적 하며, 셋째, 이를 이론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복식에서의 성의 가시적 불일치 현상을 다각적인 시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복식에서의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인간의 행동 양식은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이원적 분류로만은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복식에서도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가 혼돈된 양성적 이미지와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가 배제된 중성적 이미지가 고정된 성의 개념에서 이탈된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의 외적 조형성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복식에서 양성적 이미지란 양쪽 성의 디자인 요소를 공유하거나 이성의 디자인 요소를 착용함으로써 신체와의 상호작용으로 양성성을 띤 형식으로, 복식에서 중성적 이미지란 신체적 특질을 은폐하는 평면형으로서 신체 특징에 근거한 Y형이나 X형의 윤곽선을 갖지 않으며, 내부형, 입체형등에서도 두드러진 여성적 혹은 남성적 특질을 배제한 중성적 형식으로 정의 내릴 보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정의 내려진 복식에서의 성의 가시적 불일치 현상을 비단 20세기의 현상만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사적으로 추적한 결과, 고대 이집트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사적으로 존재하여 왔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사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를 이루게 한 요인들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확연히 구분하지 않는 시대적 이상미는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를 야기시켰다. 즉, 그리스, 로마, 비잔틴 시대에는 정신 세계를 추구하여, 복식에서 남녀 모두 성성이 배제됨으로써 중성적 이미지를 이루었으며,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시대에는 당대의 세속적인 풍조에 따라 장식성이 강한 복식의 여성적 이미지를 채택하였다.

향락 추구의 수단으로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가 출현되었다. 페티시즘, 에로티시즘, 무질서로의 회귀를 표현하거나, 동성연애에서의 성별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남녀는 이성의 복식을 착용하였으며, 코믹한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 남성은 여성의 복식을 착용하였다.

이념의 표현을 위해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가 사용되었다. 사회주의, 여성해방 등을 표명하기 위해 여성은 복식에 남성적 이미지를 도입하였으며, 무정부주의, 성정체감에 대한 반항 등을 표명하기 위해 남성

은 복식의 여성적 이미지를 채택하였다.

종교적 의미에서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가 출현되었다. 신의 속성인 양성성을 표현하기 위해 무당, 마법사, 점술가들은 여성의 복식을 착용하였으며, 성성의 부재를 표시하기 위해 성직자들은 복식의 중성적 이미지를 채택하였다.

스포츠의 보급, 직업 역할 등은 여성이 기능적인 복식의 남성적 이미지를 도입하게 하였다.

기술적 요인도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를 야기시켰다. 즉 재단법이 발달되지 않은 이집트에서는 직조된 천을 그대로 몸에 둘러 입는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남녀의 신체적 특질이 은폐됨에 따라 복식의 형태에서 중성적 이미지를 이루었다.

## 참 고 문 헌

- 1) Grove Jane, Fashion (London: Macmillan Education Ltd., 1971), p. 16
- 2) 장지혜, 정희자, 복장원론(서울: 경춘사, 1985), pp. 226-227.
- 3) Steel Valerie, Fashion & Eroticism (N.Y.: Oxford Univ Press, 1985), p. 35
- 4) Northrup B., "an approach to the problem of costume and personality", Art Education Today II (1936), pp. 94-104.
- 5) Morton G.M., The Art of Costume and Personal Appearance (3rd ed; N.Y.: John Willey & Sonns, 1968).
- 6) Hastie R.T. & Widger R.F., "New Insight into Meaning of Masculinity & Femininity in Dress", ATPTC combined proceedings (Georgia: Georgian center for continuing education, Univ of Georgia, 1976).
- 7) Davis m.n., Visual Design in Dress (N.Y.: Prentice-Hall, Inc., 1980).
- 8) 안유인, "현대 여성 일상복의 성적 이미지와 상황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9), p. 11.
- 9) 류기주, "인체에 대한 미의식에 따른 복식 형태 연구-고대 이집트에서서 낭만주의 시대까지",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1), p. 34.
- 10) Horn M.J. & Gurel L.M.,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1), p. 43.
- 11) Ibid, p. 56.
- 12) Ackroyd Peter, Dressing Up: Transvestism and

- Drag: History of Obsession (London: Thames & Hudson, 1979), p. 46.
- 13) Ibid.
- 14) Ibid., p. 43.
- 15) Ibid.
- 16) Kenneth Clark, *The Nude: The study in ideal form*, 이재호 옮김, 누드의 미술사 (서울: 열화당, 1982), p. 98.
- 17) 임범재, 인체비례론-고대로부터 르네상스까지 (서울: 흑익대학교 출판부, 1980), p. 23.
- 18) Ibid.
- 19) Wilson Elizabeth, *Adorned in Dreams: Fashion and Modernity* (London: Virago Press, 1985), p. 17.
- 20) 정홍숙, 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88), p. 71.
- 21) Ackroyd, op. cit., p. 46.
- 22) Ibid., p. 89.
- 23) Fuchs, 이기웅, 박종만 옮김, 풍소기의 역사 IV (서울: 까지, 1986), p. 2.
- 24) 임범재, op. cit., p. 42.
- 25) Wilson, op. cit., p. 18.
- 26) Horn & Gurel, op. cit., p. 79.
- 27) Ibid., p. 80.
- 28) Ribeiro Aileen, *Dress & Morality* (London: B.T. Batsford), p. 34.
- 29) Ibid., p. 37.
- 30) Horn & Gurel, op. cit., p. 189.
- 31) Fuchs, op. cit., p. 4.
- 32) Ribeiro. op. cit., p. 62.
- 33) Ibid., p. 72.
- 34) Ibid.
- 35) Garber Marjorie, *Vested Interests* (N.Y.: Routledge, 1992), p. 28.
- 36) 정홍숙, op. cit., p. 163.
- 37) Garber, op. cit., p. 77.
- 38) Ribeiro. op. cit., p. 78.
- 39) Ibid., p. 87.
- 40) Ackroyd, op. cit., p. 98.
- 41) Ibid.
- 42) Ribeiro. op. cit., p. 84.
- 43) Ackroyd, op. cit., p. 74.
- 44) Ribeiro. op. cit., p. 100.
- 45) Ibid., p. 84.
- 46) Ackroyd, op. cit., p. 52.
- 47) Ribeiro. op. cit., p. 114.
- 48) Fuchs, op. cit., p. 44.
- 49) Wilson, op. cit., p. 180.
- 50) Steel Valerie, *Paris Fashion* (Oxford: Oxford Univ. Press, 1988) p. 147.
- 51) Wilson, op. cit., p. 200.
- 52) Ibid.
- 53) Fuchs, op. cit., p. 275.
- 54) Wilson, op. cit., p. 136.
- 55) Steel, *Paris Fashion*, p. 136.
- 56) Ibid.
- 57) Ibid., p. 169.
- 58) Evans Caroline & Thorton Minna, *Women & Fashion* (London: WIPIFO, 1989), p. 62.
- 59) 임범재, op. cit., p. 23.
- 60) 정홍숙, op. cit., p. 173.
- 61) Wilson, op. cit., p. 127.
- 62) Ibid., p. 130.
- 63) Ibid., p. 6.
- 64) Ibid.
- 65) Ackroyd, op. cit., p. 52.
- 66) Ibid., p. 96.
- 67) Wilson, op. cit., p. 136.
- 68) Ackroyd, op. cit., p. 54.
- 69) Steel, *Paris Fashion*, p. 147.
- 70) Ribeiro. op. cit., p. 72.
- 71) Ibid.
- 72) Ibid., p. 114.
- 73) Wilson, op. cit., p. 180.
- 74) Ackroyd, op. cit., p. 37.
- 75) Ibid., p. 42.
- 76) Ibid., p. 46.
- 77) Rosencranz M.L., *Clothing Concept* (N.Y.: The Macmillan Company, 1972), p. 168.
- 78) Steel, *Paris Fashion*, p. 169.
- 79) Ibid.
- 80) Ibid., p. 173.
- 81) Ackroyd, op. cit., p. 37.
- 82) Gaber, op. cit., p. 28.
- 83) Steel, *Paris Fashion*, p. 149.
- 84) Gaber, op. cit., p. 52.
- 85) Fuchs, op. cit., p. 61.
- 86) Horn & Gurel, op. cit., p. 43.